

經濟發展과 價値體系

尹 錫 範

경제발전은 경제규모가 소득, 고용, 생산, 소비 등에 있어서 증대되며 이에 따라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가치체계라 함은 한 사회에서 통념상 수용되고 또한 어느 기간 동안 지배적으로 유지되는 사고체계 또는 그 준거를 의미한다.

한 사회의 가치체계는 불변인 것이 아니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그것에 상응해서 변화되기도 한다. 이는 곧 가치체계와 경제발전이 끊임없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

經濟發展은 흔히 단순재생산적 停滯狀態를 벗어나면서 경제규모가 所得, 雇傭, 生産, 消費 側面에서 증대되며, 또한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양적인 증대를 國民總生産 또는 國內總生産이라는 개념으로 포착 하였을 때, 이를 成長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게 되는데, 성장은 생산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의 병행적 증가로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經濟發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근 이, 삼 세기 동안에 이룩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인류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 생존을 지탱하여 주는 수준에서 겨우 단조로운 단순재생산을 반복하여 왔으며, 따라서 인구의 증가도 전쟁, 질병 등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수준에 억제되어 왔거나 아주 낮은 성장률로 이루어져 왔다.¹⁾

경제발전의 시동은 따라서 農業部門의 分化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축력의 이용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120-749.

1) Cipolla [3].

든, 경작방법의 발달이든간에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성의 증대는 식량생산에 소요되었던 절대노동력의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창출된 농업부문의 剩餘勞動力은 도시화하게 되면서 동시에 高次産業으로 흡수되게 마련이다.²⁾

중세 유럽 莊園의 붕괴과정에서 이농현상이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비례되었던 것은 농산품의 수요탄력성이 경직되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필요식량만이 확보되면, 더 이상의 추가생산은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소요 농업노동력의 규모가 축소되므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농산품은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절대량이 확보되면, 소득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더 이상의 생산이 불필요하게 되는 특수상품이기는 하나, 또한 그 수준 아래로 감소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 이전에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농업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농업의 분화는 단순히 잉여노동력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高次産業의 비중을 증대시킨다. 여기에서 고차산업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2차산업 및 유통, 통신, 보험 등과 같은 3차산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고차산업 비중의 증대는 곧 産業構造의 高度化라는 개편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개념은 경제 제량의 단순한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팽창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라는 질적인 변화까지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II

價値體系라 함은 흔히 한 사회에서 통념상 수용되고 또한 어느 기간 동안 지배적으로 유지되는 사고체계에 있어서 善과 惡, 許와 不許가 구분지어지는 일련의 짜임새의 틀 또는 準據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서부터 자명하게 얻어질 수 있는 논리는 바로 지배적인 가치체계가 사람들의 사회생활방식을 결정해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가치체계는 넓게 사회생활의 규범을 결정해 줄 뿐 아니라, 좁게는 개인의 가족형태,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생활의 위상 결정은 바로 그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윤리관, 도덕관을 갖게 하고 따라서 支配理念마저도 이에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가치체계는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또는 혁명과 같은 이변에 따라 급속히 새로운 이념이 주입되면서 비교적

2) Kuznets [7].

빠르게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라는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그 사회의 사회생활을 바꾸어 놓게 되고, 이에 맞추어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가치체계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준거를 만들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거꾸로 사회생활에 맞추어 재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곧 가치체계와 사회생활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정립될 수 있다.

서구 문명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준 유대-기독교 사상(Judeo-Christianity)은 자연법의 이념 위에서 오늘날의 서구의 合理主義를 잉태시켰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사상은 南美에서는 다르게 토착화되고 또한 다르게 경제발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혹자는 이를 舊敎와 改新敎의 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본원적으로 각각 토착화된 환경과 분위기로서의 그 사회의 생활양식의 異質性에서 빚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체계의 형성을 어떤 하나의 원인에만 귀속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經濟發展에 따라 가치체계가 변화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또한 가치체계에 따라 경제발전도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발전의 시대적인 緩速이나 急慢이 가치체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치체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본고에서의 입장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가치체계와, 경제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치체계의 양면을 모두 참고하는 것으로 취하고 있다.

III

이미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經濟發展이라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資本主義化하는 과정으로도 同意視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경제발전의 초기조건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화 과정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社會主義化와 經濟發展 사이의 연계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경제발전은 농업부문의 분화로부터 시원을 찾는다면 사회주의화에서의 경제발전은 초기 과정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의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이다. 즉, 사회주의는 교조적인 맑스주의의 입장을 따르든지 또는 수정된 제3세계의 정치 경제학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자본주의의 후속되는 단계로서 수용될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들어 놓은 것을 고치거나 없애버리는 단계에서의 발전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초기단계에서의 경제발전은 자본주의와의 연계가 더욱

합리적이다.³⁾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발전은 첫째로 농업부문으로부터 창출된 剩餘勞動力, 둘째로 이를 결속시킬 수 있는 資本의 蓄積, 그리고 셋째로는 大規模 工場制 生産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技術이 필요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⁴⁾ 물론 서구사회에서의 원초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첫째로 농업의 분화, 둘째로 자본의 본원적 축적 (Ursprünglich Akkumulation), 그리고 셋째로는 産業革命 (Industrial Revolution)으로부터 구비될 수 있었으나 나중에 발전을 경험하였던 사회나 또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들 요건들이 모두 자생적으로 구비되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연유되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들을 발전이라는 과정으로 조직화하는 데에는 그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價値體系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위 ‘資本主義의 精神’ (spirit of capitalism)이라는 가치체계를 중요시하는 이론에서 보면, Max Weber와 R. Tawney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取得의 本能 (acquisition instinct)이 어느 시기이고 인류 역사상 존재하였으나 그것이 발전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召命이라는 의무가 바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⁶⁾ 이러한 사고는 칼빈주의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직업의 귀천이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을 하늘이 주신 召命, 즉 부름으로 삼고, 이 부름받음에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다할 때 경제적으로 報償이 주어지며 또한 신에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재보는 생산적인데 기여하게 되어 가치창조의 결과로서 일부를 이자라는 명목으로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도둑질로 보았던 중세의 高利觀은 새로운 가치체계에 의하여 변질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회교도적인 가치체제는 생계 이상의 소득 취득은 남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탈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가계단위에 있어서 ‘잉여’ 소득의 축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즉, 회교의 가치체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생산되는 소출이 총체적으로 일정 수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구성원의 얻음은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빼앗김이 된다는 ‘零和 競爭’ (zero-sum game)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에 대한 이자는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금융업의 발전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가치체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經濟發展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

3) Dobb [4].

4) Hobson [5].

5) Sweezy [10].

6) Weber [12].

공동체적인 결속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共同體的 所有와 占有에 따라 분배가 실시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각자 능력에 따르는 경제활동의 분화는 공동체가 고유로 갖고 있는 규범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발전은 경우에 따라 공동체의 분화를 선행조건으로 필요로 하게 되기도 한다.⁷⁾

일단 經濟發展의 동인이 갖추어지고 발전이 가속화되면 시장의 논리는 공동체적인 가치체계에서 우선순위를 전폭적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개인의 소비단위로서의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게 되고, 생산단위로서의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에 전력을 경주하며, 사회적으로는 후생과 복지를 극대화시키려는 소위 三部門에 걸친 最適化가 시도되기에 이른다. 이 때 競技의 規範(rule of game)는 상호협조보다는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경쟁이 된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협조보다는 이기주의에 입각한 경쟁이 더 높게 위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의식구조에서의 변화는 가치체계에서의 새로운 顛倒를 초래하게 된다. 즉,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의 증대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을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증대시키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이익만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증대된다는 것이 바로 경제 초기의 지배적인 활동강령이 되었다. 소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된다.⁸⁾ 이와 같은 利己主義化의 必然性은 근세 초기의 서구에 지배적이었던 改新敎的 倫理에 의하여 합리화될 수 있었다. 즉, 공동체 중심의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신의 소명에 대한 충실한 실천행위로 보고, 공동체와 종교 사이의 종래의 집단적인 관계를 개인과 신 사이의 개체적인 관계로 변질시킴으로써 이기주의화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기주의화의 경향은 마침내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분화시키면서, 공동체적인 요소를 사회로부터 제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동체적인 요소라 함은 공동체를 결속시켜 왔던 유기적인 제반 관계로서 君臣 사이의 관계, 長幼 사이의 관계 등은 물론 경제생활을 초월하는 다차원적인 형성질서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근대화 이전 공동체적 사회생활을 지배하여 왔던 사고의 틀을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

身被一縷 常思織女之勞
日食三飧 每念農夫之苦

7) 인도의 자주마니(Jajmani) 제도를 들 수 있다. Holesovsky [6].

8) Smith [9].

9) 金永驥·兪尙根 校閱 [1].

이는 곧 한오라기 실을 입더라도 늘 길쌈하는 織女의 힘든 것을 생각하고, 또한 하루 세 끼를 먹더라도 늘 농사짓는 농부의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구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공동체적인 協業의 美德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일단 진보하여 우리 나라에 實學이 도입되는 조선 말기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北學에 의하여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善理財者 上不失天 下不失地 中不失人

이 글은 楚亭 朴齊家의 『北學議』에서 따온 글로서, 재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위로 하늘을 잃지 않고, 아래로 땅을 잃지 않으며, 그 사이로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개인적 또는 자본주의적인 미덕을 찬양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대부가 물가시세를 알아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미 가시어지기 시작하였다.

IV

經濟發展과 成長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市場化와 現金化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곧 발전이나 공업화 이전에는 시장화되지 않았거나 또는 금전을 반대급부로 전제로 하여 거래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관계가 金錢授受를 전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기에 이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과 같은 개념은 실제로 성장이 없이도 시장화 또는 현금화 추세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시장거래화된 부분도 마치 새로 생산된 부가가치인 것처럼, 추계에 새로이 포함되어서 경제규모가 실제로 커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각을 일으키게도 한다. 공업화 이전까지는 가정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던 취사, 세탁, 육아 등이 모두 발전과 더불어 공업화되면서 근본적으로 증가된 것이 없는데, 명목소득은 실속없이 부풀어지는 경향을 갖게 되며, 고차산업화에 따르는 새로운 서비스업의 출현은 많은 非市場部門을 市場化시키게 된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업으로는 상하수도, 오물수거, 치안 등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부문의 출현은 다시 명목적으로 국민소득을 부풀리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현금을 모든 활동에서 척도로 삼게 되는 새로운 제도와 체제를 창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복합적이었던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10) 朴齊家 [2].

차원에서 척도의 역할을 하던 요인들은 모두 현금이라는 한 차원으로 통일되고 급기야 인간생활과 문명은 현금중심의 1차원의 세계로 치환되는 경향마저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의 강화는 現金崇拜 또는 物神思想을 잉태하게 되고 그 사회의 價値體系는 그것에 맞추어 변질되고 만다.

생산물시장에서의 변화는 이제까지 거래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세미, 박, 싸리비, 강아지 등과 같이 분화 이전에는 거래되지 않고 相互 無償으로 제공되던 것이 매매되며, 금융시장에서도 보험, 적금 등과 같은 것들이 鄉約과 契를 대체하면서 현금기준으로 거래되며, 요소시장에서는 두레, 품앗이와 같은 협업이 노동력의 매매로 거래된다. 또한 용역시장에서는 공동체의 상호부조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던, 혼례 및 상례가 결혼식장업과 장례사업 등으로 현금화되며 시장화된다. 따라서, 현금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인간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척도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누렇게 번쩍이는 값비싼 황금이며!

… 中略 …

검은 것을 회계, 추한 것을 아름답게, 그른 것을 옳게, 천한 것을 고귀하게, 늙은 이를 젊게, 비겁한 놈을 영웅으로 만들고 …

이 누런 노예는 종교를 새로 만들고 또 부수고, 저주받은 놈을 축복하게 하고, 더러운 문둥이를 찬양받게 하도다. 도둑놈들에게는 명예와 벼슬을 주어 상원의원과 자리를 같이 하고, 이것이 바로 늙은 과부도 새로 시집가게 해 주도다.”

위의 구절은 산업화 초기의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아테네의 티몬」이라는 연극에서 대사로 쓴 것으로, 분화된 당시 새 사회에서 돈을 중심으로 한 價値體系의 일부를 해학적으로 비판한 서술이다.¹¹⁾

이와 같은 現金化 또는 市場化의 과정이 배금사상과 물신사상을 낳게 하는 데에는 이를 수반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온 도시화, 가족분화, 가정개념의 변질 등과 같은 현상이 공존하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현상은 利潤의 極大化, 現金收入의 極大化를 촉진시키는 효율성의 증대 노력 때문에 더욱 가속화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산업화는 효율성의 증대를 목표로 하여 장족의 기술발전을 이룩하게 되었고, 기술의 진보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精密化 또는 精緻化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시간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정확성은 근대 사회의 생활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곧 기계의 가동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간의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고, 어떤 의미로는 중국적으로 기계의 가동에 맞추어 인간

11) 이 구절은 맑스가 그의 『자본론』에서 인용한 것이 제기가 되어 그 뒤 여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Marx [8].

의 생활이 지배되기까지 이르게 되므로, 인간은 기계에 종속되는 상황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經濟發展은 인류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히려 인간생활을 속박하게 되고, 마침내는 정신적으로 황폐화하게 하는 부작용마저도 초래하게 된다. 社會的 不安의 深化, 愛隣思想의 缺乏, 現金爲主의 短期的 快樂 등은 모두 이와 같이 기계적인 효율화의 일방적 강화에서 파생되는 의식의 변화이며 더 나아가서는 건전한 價値體系의 몰락으로 치닫게 하는 前兆가 된다.

V

아세아는 필리핀과 같은 기독교국가, 스리랑카, 버마, 그리고 태국과 같은 불교국가,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유교 및 불교국가, 인도와 같은 힌두교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와 같은 회교국가, 그리고 월남과 같은 기독교 및 불교 혼재국가 등 종교면에서 아주 다양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經濟發展의 수준이 높은 일본의 경우, 우리는 흔히 그 발전이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기인되었는가를 찾으려는 시도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위 '네 마리의 용'이라고 하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와 견주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이들 나라들이 경제발전의 동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문화적 배경으로서 유교적인 사고에 기초한 가치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儒敎가 갖고 있는 節約과 勤儉에 대한 미덕관, 君臣, 父子, 長幼의 관계를 위계화하는 조직, 그리고 미시적인 細單位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국가, 천하로 연계되는 사회관 등이 모두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나, 商工에 대한 천시, 실용과학에 대한 등한, 고전적인 經書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은 발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교가 갖는 '普天同慶'이라는 지배이념은 均霑과 正義를 강조함으로써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나누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발전 이후 변질해 나가는 가치체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힌두교와 불교의 경우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괄목할 요인이나 성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그것이 경제발전의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흥공업국들을 바로 뒤쫓아 오고 있는 태국의 긍정

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미얀마의 부정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스리랑카의 경우는 싱할리스와 타밀라두 사이의 분쟁이 없었을 때까지는 안정과 차분한 발전의 표본으로 선망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힌두교가 불교와 차이를 갖는 중요한 차원은 첫째로 힌두교의 경우 불교를 하나의 분파로 본다는 것이며, 둘째로 힌두교에서는 살생을 전제로 한 회생이 있으나, 불교의 경우는 살생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발전의 원인으로서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발전 이후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回教의 경우는 우선 教條的으로 몇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로, 아직까지도 몇몇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金利를 죄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금속 자체의 死藏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금리를 죄악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동원이라는 차원에서의 동인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소수의 축적자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비효율을 갖게 된다. 둘째로 잉여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저축을 촉진시키지 못하게 하므로 발전의 필요성이나 또는 발전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잉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을 제거하게 한다. 회교는 근본적으로 支配者와 統治者의 宗教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통치자의 경제외적 이념과 의지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연자원이 넉넉한 소수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경제발전의 수준이 극히 후진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교적 價値體系가 발전에 주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더욱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경우에도 富와 所得의 극심한 불균등 분배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회교가 가지고 있는 동족 사이의 兄弟愛와 被治者의 근본생활을 보장시켜 줄 治者의 의무는 긍정적인 가치체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카트(Zakat)와 같은 구빈기금은 운영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체계의 유지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金永驥·俞尙根 校閱, 『明心寶鑑』, 서울: 明知大學校 出版部, 1978.
2. 朴齊家, 『北學議』, 서울: 을유문화사, 1971.

3. Cipolla, Carlo M., *The Economic History of World Population*, Baltimore : Penguin Books, 1970.
4. Dobb, Maurice,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ondon : RKP, 1946.
5. Hobson, J. A., *The Evolution of Modern Capitalism*,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894.
6. Holesovsky, Vaclav, *Economic Systems : Analysis and Comparison*, New York : McGraw-Hill, 1977.
7. Kuznets, Simon, *Modern Economic Growth :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66.
8. Marx, Karl, *Capital*, London : J. M. Dent, 1958 (1867).
9.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Wealth of Nations*, London : Methuen, 1950 (1776).
10. Sweezy, Paul,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New York : Monthly Review, 1956.
11.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 A Historical Study*, Gloucester, Massachusetts : Smith, 1963 (1926).
12.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alcott Parson, London : Allen and Unwin, 1930.